

이 력 서

(희망연봉 : 면접시 협의)

(지원부문 : 웹디자이너 및 퍼블리셔)

성명	한글	박진아	한자	朴眞雅	
생년월일	1988년 7월 22일		연령	만 28세	
E-mail	7222hello@naver.com				
휴대폰	010-7222-7212	자택번호			
주소	의정부시 금오동 88-7 A동 303호				

1. 학력사항

년 / 월	학교명	학과	졸업구분
2007년 03월 ~ 2013년 02월	삼육대학교	미술컨텐츠학과	졸업
2004년 03월 ~ 2007년 02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2. 교육사항

년 / 월	교육과정	교육기관	비고
2013년 12월 9일 ~ 2014년 9월 5일	출판편집디자인/ 웹디자인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수료
2016년 3월 14일 ~ 2016년 9월 16일	반응형 UX/UI 디자인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수료

3. 포트폴리오

구분	URL
국립국어원 (기업형) 리뉴얼	http://parkjina88.dothome.co.kr/korea/
개인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 (반응형) 리뉴얼	http://parkjina88.dothome.co.kr/
서울뮤지컬아트센터 (기업형) 리뉴얼	http://parkjina.cafe24.com
서울뮤지컬아트센터 (모바일) 리뉴얼	http://parkjina.cafe24.com/mobile
CHARITY: WATER (반응형) 리뉴얼	http://parkjina.cafe24.com/media

4. 직무능력사항

프로그래밍	활용 능력
XHTML / CSS	웹 표준과 접근성을 준수한 하드코딩 (W3C통과 / K-WAH통과) http://parkjina88.dothome.co.kr/korea/ http://parkjina.cafe24.com
HTML5 / CSS3	CSS애니메이션, js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K-WAH통과) 미디어쿼리를 활용한 반응형 웹 제작 (K-WAH통과) http://parkjina88.dothome.co.kr/ http://parkjina.cafe24.com/mobile http://parkjina.cafe24.com/media
Javascript / j-Query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Nav, Main Visual 등 구현 가능
PHOTOSHOP/ ILLUSTRATION	GTQ 자격증 보유 이미지 제작, 편집, 합성, 웹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등
Word	ICDL 자격증 보유 / 기본 문서 작성 및 관리 능력(상)
Powpoint	ICDL 자격증 보유 / 프레젠테이션 다수 경험 능력(상)
Excel	회계 및 수식활용 능력(상)

5. 경력사항

근무기간	회사명	직급	직무내용
2012년 10월 ~ 2013년 1월	주식회사 헬로스마일	미술치료사 인턴	아동 미술치료 실습
2012년 2월 ~ 2013년 9월	주식회사 헬로스마일	(최종직급) 실장	데스크 관리, 환경 관리 및 기업 운영 총괄 • 가맹점별 선별 실장 교육보고서 실시 2. 신생회사 홍보전략 실시 (바이럴마케팅, 페이스북 등) 3. 회사 자체 이벤트 (안내 디자인 및 스크린도어 제작 활동)
2013년 12월 ~ 2015년 4월	트웬티로즈 (쇼핑몰)	쇼핑몰 웹디자이너	쇼핑몰 웹 페이지 수정 업무

6.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2013년 08월 01일	웹디자인기능사 필기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년 02월 00일	아동미술교육자 1급	한국아동미술학회
2011년 12월 13일	ICDL Module 3 : M3. 워드프로세싱 ICDL Module 6 : M6. 프레젠테이션	ICDL
2016년 5월 13일	GTQ포토샵 1급	ICDL

자기소개서

<p>지원 동기</p>	<p style="text-align: center;">회사와 나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p>10개월 동안의 웹 디자인, 퍼블리싱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신입사원으로 (주)라온비에 지원하게 된 박진아입니다. 회사 로고 디자인과 메인 페이지의 미니멀리즘함이 저를 지원까지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2016년 디자인 시장의 변화의 키워드 "접근성"에 발맞추어 함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디자인을 전공하여 제품, 시각디자인 공부를 하였고, 대학교에 가서는 회화와 미술치료 관련 공부를 하였고, 졸업 후에는 지속적인 벤치마킹과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했고 아직 부족하지만 10개월간 하루 평균 4시간 수업, 2시간 복습을 반복하며 웹디자인까지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온 변화가 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직관력입니다.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 나오는 CF에는 어떤 재미있는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갔는지,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떠한 스토리와 디자인을 접목했는지, 심지어 건물의 구조까지도 레이아웃의 형태로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열려있는 저인 만큼 항상 관찰하며 나에게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아직은 실무를 경험한 적 없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시작을 귀사와 함께 하고 싶고, 회사와 함께 변화해 가고 싶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합니다.</p>
<p>학교 생활 및 교외 활동</p>	<p style="text-align: center;">하다 보니</p> <p>여자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화 속 왕자와 공주를 동경해왔습니다. 책으로 보면 책이 닫히는 순간 공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벽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하다 보니 어느덧 디자인과 학생이 되어있었습니다. 예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패션, 회화, 연극 모든 예술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 하다 보니 아직도 섭렵하는 중입니다. 아마도 초등학교시절에 수채화반에 들어가 교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미술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산업디자인과에 진학하였고 대학교는 회화와 미술치료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27살, 현재도 웹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거 참 야근 많고 고된 직업인데.." 야근 많아도 보람 있는 게 더 가치 있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직업이 저에겐 더 가치가 높습니다. 앞으로의 제 직업이 걱정되기보단 많이 설레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에 발맞춰 변화합니다.</p> <p>미술 학도라면 누구나 그렇듯 항상 야간작업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밤을 새도 익숙하고 눈이 켜지지 않았습니. 도자기를 만들고, 사람의 심리를 미술로 분석하고 누드화를 채색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동아리, 과 대표 치어리더활동을 하며 활기찬 학생</p>

	<p>활을 보내왔습니다. 학점을 다 이수하고 나니 또 다른 흥미가 생기는 것을 찾게 되었고 광고영상, 시각디자인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졸업전시 때문에 끈덕지게 디자인을 연구하진 못했지만 그때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미술치료를 그만두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해준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p>
<p>성 장 과 정</p>	<p style="text-align: center;">경험 덕입니다.</p> <p>인생에서의 갖가지 경험들은 개인의 안목과 인성을 기르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학생치고는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4년간의 학기생활과 2년간의 휴학생생활 하며 내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 우물이 넘칠까 불안해 발만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싫었고 예민한 감성을 지녔지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을거야."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생계형으로 바뀌며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상황에 부딪혀도 봤습니다. 이런 시작이 다른 학우들보다는 조금 늦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회에서 쌓은 경험은 저에게 좋은 "덕"이라 생각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p>
<p>성 격 및 교 우 관 계</p>	<p style="text-align: center;">피리부는 사나이처럼..</p> <p>사실 미술치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인턴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과 금방 친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센터이다 보니 지능적 문제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다 미운 7살의 경우에는 달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때면 원장님들은 항상 SOS를 외쳤고 저는 손에 사탕 하나와 색연필을 쥐어 들고 달려갔던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기분이 좋았고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최대 행복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기에 내담자의 감정에 동화되어 슬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삼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어 심리검사,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다시 한번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였습니다.</p> <p>항상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모르는 분야의 언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찾아보며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일에 쉽게 끌리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매사에 빈틈이 없으려 항상 노력합니다.</p> <p>대인관계를 항상 중요시 합니다. 전주 명물 초코파이를 사러 가서도 고민하다 보면 30개를 사게 될 정도 입니다. 대인관계 역시 인맥이 아닌 덕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 이야기가 나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는 스타일이며, 타인의 가치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 나의 것이 될지 항상 생각합니다. 때문에 나의 좋은 이야기는 항상 공유하고 스치듯 본 좋은 문구나 이야기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p>

입 사
후
포 부

좋아요 41,518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외 디자인관련 pop 작업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 글을 본 사람의 수가 서울 인구의 5분의 1일 넘었을 때의 벽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나 인터넷 뉴스기사, 사회 이슈를 계속 탐방하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씩 흘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관심사와 직업적 능력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제가 가게 될 뉴 존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